

자기계발 꾸준히 하고 노후준비 철저히

우리나라 50대의 절반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이다. 연령으로 환산하면 1955~1960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50~55세에 해당된다. 1960년은 8·15광복(1945) 이후 수립됐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1960)에 의해 붕괴되고 과도내각이 섰던 시기이다. 그 이듬해 박정희 前 대통령에 의한 5·16군사정변(1961)이 일어나 군사정권의 서막을 알리던 시기가기도 하다.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기로 한 다하더라도 혼란과 혼돈 그리고 암울했던 독재와 탄압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50대 중반인 필자의 경우 중학교 시절에 국민교육훈장을 외워야 했고 대학시절에는 10·26사태(1979)에서 5·18민주화운동(1980)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2번이나 휴교를 맞았다. 큰 1년을 수업 없이 레포트와 과제물을 제출해 학점을 이수하는 변칙적 학사행정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았던 시기였다. 정부를 비판하면 강제로 군 입대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으며 장발로 경찰에 적발되면 가위로 머리카락을 난도질당하던 시절이었고, 경찰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젊은 여성의 치마길이를 재어 경범죄 여부를 판단하던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요즘처럼 고학력 청년실업이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은행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으며, 대학의 추천에 의해 무시험 전형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에 쉽게 취업이 가능한 시기였다. 아무튼 군사독재에 의한 암흑기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한참 사회생활을 하던 시기에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사회와 국민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50대 일부는 소위 말하는 386세대에 포함되기도 해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집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50대 후반은 기성세대와 386세대의 중간에 끼여 죽도 밥도 아닌 어중간한 세대로 인식돼가면서 사회·정치적 변화를 지켜보아 했다. 그 후 외환위기 당시 가장 많이 직장에서 해고당해야만 했던 세대이기도 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 둘씩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50대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아직 자녀의 교육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혼사를 치루기 시작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질 상황에 처해있다.

그와 동시에 아랫세대로부터 불기 시작한 양성평등의 결과로 가부장적 막강했던 권력을 잃고 무능력하고 있으나 마나한 아니, 없어도 되는 위치로 전락한 우리나라 아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면 현재의 50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부터이니 노인으로서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50대가 정년을 했거나 정년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 50대는 노인이 되더라도 일하는 노인이 되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50대는 아직도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질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교육과 혼사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50대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

50대가 살아간 제3공화국은 혼란·혼돈·독재·탄압의 시기 외환위기 겪어... 어느덧 정년 오는데 자녀교육·혼사 남아

제 앞으로는 정년을 여러 번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 한번 정년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술을 배우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과 타 세대와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기법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아랫세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50대일 것이다. 우리 50대의 학력수준은 그 이전 세대의 학력수준보다 월등하게 높다. 현재 60대에 비해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 성장하고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은 일제강점기와 8·15광복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로 가

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세대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50대부터는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세대이기를 바란다.

행복한 노후생활은 높고먹으며 여행이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50대는 앞으로 30~40년의 여성이 남아있다고 가정하고 앞날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 30~40년을 일하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위한 노후 준비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50대는 남은 여성들만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세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50대 인터뷰 "젊은층보다 윗세대와 세대차 느껴"

정정숙 주부 "다른 세대의 말 속에서 삶의 지혜 얻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어린 사람들이 과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정정숙(52·주부·사진)씨는 평소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는 그녀는 질문을 "오�히려 60대 이상의 윗세대와 세대 차이를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아랫세대와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짙은 윗세대와의 갈등이 더 크다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분들을 만나면 자신들을 너무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비치면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분들은 저희 부부문제에 대해 자주 간섭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적지만 많은 나이여서 이럴 때에는 불쾌한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씨는 "60대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가끔 그들과 어울릴 때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거주 지역인과의 이념차이가 더러 생겨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숙씨는 이런 세대 차이의 대처법으로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정 안될 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답했다.

정씨가 대체로 많이 어울리는 세대는 주로 40대와 60대이다.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40~60대 사이의 가정주부들과 시간을 공유할 기회가 많아서다. 정씨는 그 중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포레미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40대가 가장 어울리기 편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서 다른 세대의 말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세대일수록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세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최신 유행 음악 등으로 공감대 넓혀"

군복무 중인 이성규씨의 세대공감법

현재 군복무 중인 이성규(50·사진)씨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보다 어린 세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주로 20대인 젊은 군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가장 관련 세대는 20대지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도 20대이다"라고 답했다.

"나이 어린 부하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내가 저 나이 때에는 저러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때와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단체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대에서 내 뜻이 그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공감 형성이 안 될 때에는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도 같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며 그들의 편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성규씨는 "20대는 50대에게 없는 활력과 투지, 적극성이 있는 세대여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하면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며 "세대 차이를 느끼고 20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여러모로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주로 운동이나 최신 유행하는 음악 등을 통해 젊은 군장병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외에 평상시에 이성규씨가 자주 어울리는 세대는 40~50대 연령층이다. 하지만 이씨는 "포레인 40~50대의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라며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빈부의 차가 느껴지면 그 속에서도 이념의 차이가 생겨 또래에도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맥진영과 전법계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Zen Questions and Answers from Korea **Hwa-du** 화두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늘

민속죽염 22년전통 22년전통 22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협농자년거치 4년분할상환

농협농자년거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